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

양 동 옥 ·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상태에서 월경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척도의 개발과 함께 초경을 경험한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 월경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초경 후 경과기간이 2년에서 32년 정도인 933명의 여성(연령범위: 16~46세)이었는데, 그들은 그 경과기간에 따라서 여섯 집단으로 나누었다. 월경에 대한 태도는 초경 후 경과기간이 짧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약간 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월경에 대한 태도척도의 하위점수로 분석할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들은 양성평등의 시대적인 상황 및 평생발달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월경을 경험한다. 사춘기의 신체적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초경은 여성에게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며, 한 사회에 속한 여성으로서 그녀의 자아상과 성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전환점이 된다. 또한 월경의 종결을 의미하는 폐경은 여성에게 노화의 지표나 여성성의 상실로 간주되므로 심리적인 갈등을 야기한다(장휘숙, 1996). 이러한 의미에서 월경은 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사건이며, 또한 생물학적, 문화적, 심리적 중요성을 가진 총체적 사건이다(Motiff, Caspi, Belsky, & Silva, 1992).

월경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만 고유하며

거의 모든 여성들이 삶의 일부로 경험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 여러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월경을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금기(menstrual taboo)가 존재해 왔으며, 또 이를 계기로 고정관념이 생겨났다. 즉 월경은 출혈을 연상시키므로 흔히 더럽거나 위험한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으며, 여성이 월경중인 사실을 감추지 못한 경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당사자의 행위를 여성답지 못한 일로 평가했다. 또한 월경은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함께 경쟁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까지 했다(노지은, 1995; 윤가현, 1998;

Stoltzman, 1986). 이러한 월경에 대한 금기나 고정관념들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사라지기도 했지만, 월경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여전히 여성들의 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노지은, 1995).

일반적으로 월경을 바라보는 태도는 문화적인 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대에 와서도 월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권에서는 초경을 경험하기 전후의 여자아이들이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및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Clarke & Ruble, 1978). 또 사춘기 소녀들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인 금기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월경은 신체적 불편함, 증가된 예민성, 활동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는다(Stoltzman, 1986).

문화적인 신념을 쉽게 받아들인 탓인지 월경에 대한 태도 연구는 주로 현재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Brooks-Gunn과 Ruble(1980)이 개발한 월경 태도 질문지(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 MAQ)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Brooks-Gunn과 Ruble(1980)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MAQ의 내용이 '신체 및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사건(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debilitation event)', '자연스러운 사건(natural event)', '귀찮은 사건(bothersome event)', '월경 시작을 예기할 수 있는 사건(event whose onset can be predicted and anticipated)', 그리고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미쳐서도 안 되는 사건(event that does not and should not

affect one's behavior)' 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월경에 대한 태도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면 우리 문화권에서 이를 이해하는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월경에 대한 태도를 살피는 연구들의 대다수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인데, 연구대상자들은 월경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도 월경에 따르는 불편함 때문에 힘들고 귀찮다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김정은, 1992, 1993; 김진숙, 1998; 홍경자·박영숙·김정은·김혜원, 1998). 또 월경에 대한 태도는 월경 전후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신체 및 정신적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힐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김정은, 1992; 김진숙, 1998; 홍경자 등, 1998; Woods, 1985).

그렇다면 월경에 대한 태도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문화적 신념의 중요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도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과거에 개발된 측정도구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Brooks-Gunn과 Ruble(1980)이 개발한 월경에 대한 태도 질문지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월경 전후기에 자신이 경험하는 불편한 증상을 보고하는 것처럼 유도된 문항들(예: 여성들은 월경 중일 때 평상시보다 더 피곤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경 전이나 월경 중에 체중 증가를 보인다)로 현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월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김진숙, 1998).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성과 여성의 존재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즉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월경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통적인 남녀구분이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곧 월경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척도는 단순히 월경 전후로 경험하는 증상에 당위성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가치가 남성과 비교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대상자의 연령폭도 단순히 젊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초경을 경험한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까지 확대되어 시리적인 변화에 따른 차이(예: cohort 효과)가 반영되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몇 차례의 예비연구를 통해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한 다음, 그 척도로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초경을 경험한 시기로부터의 경과기간(본고는 이를 ‘초경 후 경과기간’이라고 함)”에 따라서 월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령’이라는 변인 대신 ‘초경 후 경과기간’이라는 변인을 사용한 이유는 같은 연령층이라고 하더라도 초경의 시기가 심할 경우 9년까지 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사일 당시 주기적으로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933명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연령 평균은 29.52세($SD = 8.95$, Range = 16-46)이며,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이 55%(513명)이었다. 초경을 경험한 후 1~2년 정도까지는 자궁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여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켰다(Northrup, 1998). 또한 초경을 경험한 후 32년 이상 경과한 여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폐경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연구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초경을 경험한 후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에 따라 5년 간격으로 연구대상자들을 여섯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초경 후 2년 이상에서 7년 미만까지를 1집단, 7년 이상에서 12년 미만까지를 2집단, 12년 이상에서 17년 미만까지를 3집단, 17년 이상에서 22년 미만

표 1.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연령 및 초경연령 평균

초경 후 경과기간	n	연령 (범위)	초경연령 (SD)
1집단 2년- 7년	170	17.09 (16-22)	12.94 ^a (1.18)
2집단 7년-12년	164	22.38 (19-26)	13.19 ^a (1.10)
3집단 12년-17년	160	27.47 (23-31)	13.68 ^b (1.11)
4집단 17년-22년	159	32.99 (30-38)	14.03 ^{bc} (1.20)
5집단 22년-27년	156	38.54 (35-44)	14.39 ^c (1.42)
6집단 27년-32년	124	42.81 (39-46)	14.44 ^c (1.22)
전체	933	29.52 (16-46)	13.74 (1.33)

주: 초경연령에서의 영문 위첨자는 Scheffe'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를 나타냄.

까지를 4집단, 22년 이상에서 27년 미만까지를 5집단, 그리고 27년 이상에서 32년 미만까지를 6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초경연령은 평균 13.74세($SD = 1.33$)이었으며 또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_{5,927} = 41.07, p < .001$),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도구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 월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었는데, 그 개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월경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여대생 6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즉, 1차 예비연구에서는 여대생들에게 월경에 대한 느낌이나 대처방식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다음, 그 내용과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경에 대한 태도를 진술하는 2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26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는 연구방법론 및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및 박사과정 연구원생 5명에게 월경에 대한 태도의 진술 내용이나 정확성을 살펴보도록 의뢰한 상태에서 구했다. 안면타당도 검증에서 최소 1~2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문항들에 대하여 어법이나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였다. 안면 타당도를 확인한 26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경을 경험하지 않는 남학생까지 포함시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의견을 묻는 2차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즉, 대학생 537명(남 201명, 여 336명)을

대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26문항 중 각 문항과 총점의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낮은 4문항을 제외한 후 22문항이 추출되었는데, 그 22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71($n = 537$)이었다.

1차 예비연구에서 응답했던 자들이 아닌 또 다른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여대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월경에 대한 자유 반응을 하도록 하는 3차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의 반응을 토대로 월경에 대한 태도를 진술하는 새로운 문항들을 작성했으며, 이를 2차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22문항과 합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22개 문항에 대하여 어법이나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모두 28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를 다시 검증 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28문항 중 각 문항과 총점의 상관이 낮은 7문항을 제외한 후 21문항을 분석에 포함시켰는데(표 2. 참조), 이 경우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1($n = 933$)이었다.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의 총점의 범위는 21점부터 147점까지이며, 긍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점수는 역으로 했기 때문에 총점이든지 요인점수이든지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의 예비연구를 통해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1년 7월

표 2.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2. 월경중이라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차릴 때 부끄럽다	.727	.229	-.136	-.140
16. 생리대를 구입할 때 주위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681	.119	.111	-.015
1. 생리대는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물건이므로 감춘다	.641	.185	-.110	.245
13. 남편(남자친구)에게 월경증임을 알리는 것은 부끄럽다	.641	.062	.127	.126
4. TV이나 잡지 등에서 월경상품(생리대, 생리통 약)에 대한 광고를 보면 창피하고 어색해진다	.614	.032	.106	-.028
12. 공공연한 장소에서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삼간다	.551	-.066	-.018	.091
17. 공공연하게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509	-.175	.265	.212
19. 월경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남에게 숨기고 살아야 한다	.481	.013	.388	.153
6.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부럽다	.064	.746	.009	.071
8. 여성들의 월경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042	.745	.106	.254
18. 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다	.146	.684	.061	.227
11. 월경은 여성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상이다	.018	.555	.200	.069
21. 월경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다	.024	.493	.393	.257
15. 여성의 사회적 능력은 월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성보다 못하다	.054	-.022	.758	.147
20. 월경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정신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096	.102	.750	-.071
9. 월경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나약할 수밖에 없다	.070	.135	.648	-.118
7. 월경으로 인한 행동상의 제약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021	.254	.571	-.259
14. 월경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짐이다	.146	.407	.466	-.188
* 5. 월경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자랑스러운 현상이다	-.021	-.195	-.010	-.796
* 3. 월경은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045	-.234	-.017	-.783
* 10. 월경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어도 월경을 한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	-.014	-.364	-.014	-.650
고유값	3.05	2.75	2.60	2.17
설명변량(%)	14.54	13.11	12.38	10.37
내적 일치도 계수 α	.77	.76	.72	.77

주: 문항번호 앞의 * 표시는 역으로 점수화 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1요인: 여성만의 비밀, 2요인: 여성의 짐
3요인: 전통적 여성성, 4요인: 여성의 상징성

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해 주로 일대일 및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설명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부

분 질문지를 받은 즉시 곧바로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설명을 포함해서 질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20분 미만이었다.

결 과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

월경에 대한 태도 문항들에 대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1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제한시켰으며, 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킨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1요인은 8문항, 2요인은 5문항, 3요인은 5문항, 4요인은 3문항이 도출되었으며, 1요인은 “여성만의 비밀”, 2요인은 “여성의 짐”, 3요인은 “전통적 여성성” 그리고 4요인은 “여성의 상징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네 가지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0%를 약간 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72에서 .77사이에 해당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전체점수 및 하위요인별 점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전체 점수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토대로 살펴보고, 또 하위요인별 점수의 차이는 다변량분석(MANOVA)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점수를 표 3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7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체점수는 1문항 당 평균 3.58(75.2점/21문항)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월경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반응했다는 뜻이다. 또 월경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1요인 여성만의 비밀은 평균 3.70(29.6점/8문항), 2요인 여성의 짐은 평균 3.86(19.2점/5문항), 3요인 전통적인 여성성은 평균 3.04(15.2점/5문항), 그리고 4요인 여성의 상징성은 평균 3.74(11.2점/3문항)로 나타났다.

표 3.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 [M(SD)]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전체	F(5,927)
	2년-7년	7년-12년	12년-17년	17년-22년	22년-27년	27년-32년		
1 요인	34.2 ^a (7.7)	30.4 ^b (7.2)	29.4 ^{bc} (7.4)	28.2 ^{bc} (7.3)	27.5 ^c (7.6)	26.9 ^f (7.2)	29.6 (7.8)	20.26***
2 요인	21.5 ^a (5.5)	19.7 ^{ab} (5.8)	19.7 ^{ab} (5.5)	18.1 ^{bc} (5.4)	18.4 ^{bc} (6.0)	16.9 ^f (5.6)	19.2 (5.8)	11.95***
3 요인	16.7 ^a (4.8)	15.5 ^{ab} (4.9)	14.6 ^b (5.3)	14.5 ^b (5.1)	14.4 ^b (4.7)	15.5 ^{ab} (5.1)	15.2 (5.0)	5.03***
4 요인	11.4 (3.7)	11.4 (3.2)	11.3 (3.6)	11.3 (3.9)	11.3 (3.8)	10.6 (3.8)	11.2 (3.7)	< 1.0
전체점수	83.8 ^a (13.6)	77.0 ^b (14.9)	75.0 ^b (14.4)	72.1 ^{bc} (14.7)	71.6 ^{bc} (14.3)	69.9 ^f (13.7)	75.2 (15.0)	19.56***

주: 평균점수에 있는 영문 위첨자는 Scheffe'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를 나타냄.

1요인: 여성만의 비밀, 2요인: 여성의 짐, 3요인: 전통적 여성성, 4요인: 여성의 상징성

*** $p < .001$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 월경에 대한 태도의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_{5,927} = 19.56, p < .001$). 이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경 후 2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의 1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또 초경 후 7년 이상에서 17년 미만까지의 2집단과 3집단이 22년 이상에서 32년 미만까지의 5집단과 6집단보다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월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경 후 경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1은 1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토대로 그러한 경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만의 비밀'(F5,927 = 20.26, $p < .001$), 2요인 '여성의 짐'(F5,927 = 11.95, $p < .001$), 그리고 3요인 '전통적 여성성'(F5,927 = 5.03,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4요인 '여성의 상징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3개의 요인에 대한 사후 검증(Scheffe' 검증)의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요인에서는 초경 후 경과기간의 증가와 함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경 후 2년 이상에서 7년 미만까지의 1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편이고 또 7년 이상에서 12년 미만의 2집단이 22년 이상의 5집단과 6집단보다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1요인에 대한 집단간의 점수차이는 전체점수가 보여주는 양상과 매우 흡사했다.

2요인에서도 초경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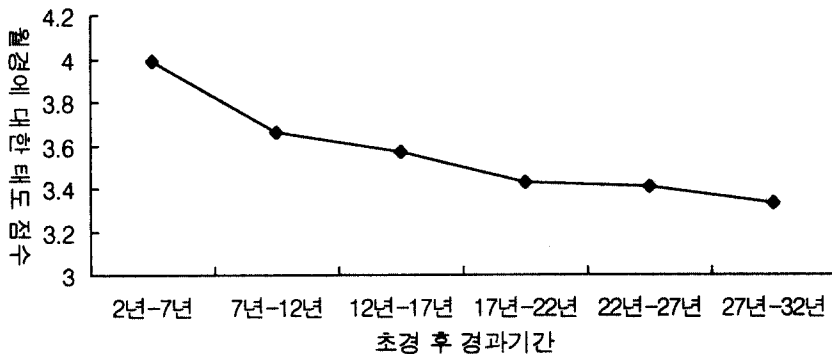


그림 1.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점수 양상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 월경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별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Wilks' Lambda = .85, $p < .001$). 그 결과 1요인 '여성

특 점수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 이상에서 17년 미만까지의 1집단부터 3집단까지의 차이는 없으며, 또 7년 이상에서 27년 미만까지의 2집단부터 5집단까지의 차이는 없었다. 오직 마지

막 집단의 점수가 처음 세 집단보다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요인에서의 집단간 점수차이는 전체점수가 보여주는 양상과 매우 흡사했다.

3요인에서는 태도점수가 초경 후 경과기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마지막 집단에서 점수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집단의 점수를 제외시킬 경우 1요인이나 2요인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점수는 초경 후 2년 이상에서 12년 미만의 1집단과 2집단의 것과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4요인에서는 마지막 집단에서의 점수가 다른 집단들보다 약간 낮기는 했지만, 집단간의 차이는 무의미했다. 상기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여섯 집단의 평균값을 그림 2로 제시했는데, 이는 그림 1과 마찬가지로 1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논 의

지금까지 월경에 대한 태도를 살피는 연구들은 주로 Brooks-Gunn과 Ruble(1980)이 개발한 월경에 대한 태도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조사대상자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가 월경을 전후로 경험하는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질문지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월경을 바라보는 입장을 반영한 측정도구가 아님과 함께 대부분의 연구들이 월경을 경험하기 시작한 연령층이나 초경 후 몇 년 지나지 않았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여성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월경을 경험한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여성들의 태도와 비교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및 평생발달의 관점을 반영한 상태에서 월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과 함께,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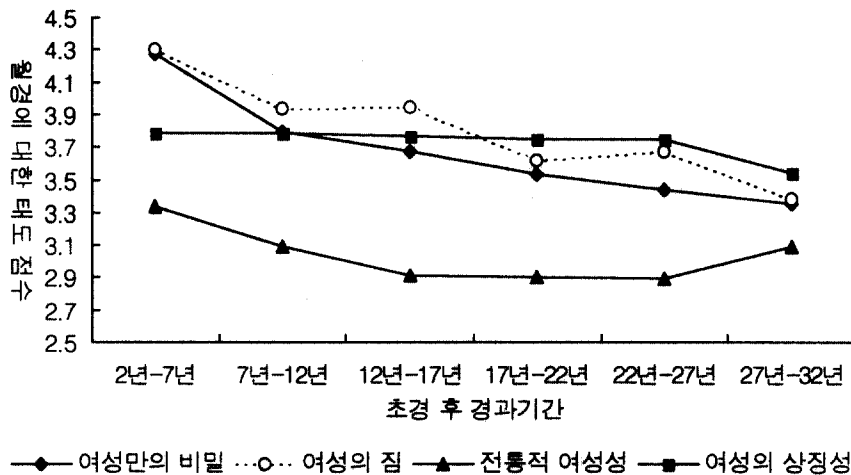


그림 2.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 양상

토대로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는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를 비교 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소개한 월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여성만의 비밀,' '여성의 짐,' '전통적 여성성,' 그리고 '여성의 상징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의 전체점수를 먼저 살펴보면, 1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월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초경 후 경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과 2요인이 전체점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초경 후 경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만의 비밀 또는 여성의 짐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줄어들고 있다. 역시 3요인의 점수도 경과기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한다면(물론 마지막 집단의 점수는 약간 상승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Woods, Dery, & Most, 1982).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의 결과만을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초경을 경험한 지 몇 년 지나지 않는 여성들이 월경을 귀찮거나, 힘들거나, 부끄럽거나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김진숙, 1998; 홍경자 등, 1998; Brooks-Gunn & Ruble, 1980). 이를 토대로 왜 초경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랜 세월동안 월경에 익숙

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3요인의 결과를 볼 때 1요인과 2요인의 해석이 그와 같이 단순히 넘어가기는 어렵다. 최소한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을 토대로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초경 후 경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단순한 해석을 다시 하자면, 초경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월경 전후로 찾아오는 신체 및 심리적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편함이나 성가신 일들에 익숙해져가기 때문에 부정적 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월경 전후기 증상과 월경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특히 초경을 경험한 지 30년 정도 지난 마지막 집단에서의 낮은 점수는 폐경과 결부시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그들은 노화의 지표가 되는 폐경을 앞두고 월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 보다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많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초경 후 경과기간의 증가에 따른 태도 점수의 감소를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해보자. 남녀를 불문하고 과거에는 월경의 경험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문화적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근대

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성들은 월경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의의가 없지만, 왜 여자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등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다.

곧 근대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과거의 여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태도를 물을 때 '싫다' 또는 '귀찮다' 등의 입장을 서슴없이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Woods 등, 1982). 그렇지만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 태도 등을 반영하는 첫 번째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표현의지가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월경을 불결하고 숨겨야 한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 통념과 관계가 적지 않다. 즉, 여성들은 월경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 학교, 성교육, 친구, 매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월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Fradkin & Firestone, 1986; Rodin, 1976), 대부분 월경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어머니들이 월경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 언어와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월경이 정상적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노지은, 1996; 장휘숙, 1996). 그래서 초경을 경험한 소녀들은 이러한 월경에 대한 사회적인 금기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및 태도를 갖게 되며, 월경에 대한 사춘기 소녀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Clarke & Ruble, 1978; Stoltzman, 1986).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월경에 대

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과는 달리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상태에서 1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렇지만 초경 후 경과기간의 증가에 따라서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실제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월경을 전후로 파생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월경에 대한 태도 차이를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여러 연령층을 상대로 월경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월경 전후의 심리 및 신체적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면접과정에서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월경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월경은 여전히 귀찮고 불편하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경에 대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출산여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은(1992). 일부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의 관계. 모자간호학회지, 2, 55-60.
- 김정은(1993). 여성의 월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구축. 간호학회지, 23, 224-244.
- 김진숙(1998). 월경전기 증후군, 월경에 대한 태도, 신경증적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지은(1995). 월경 경험과 문화적 금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장휘숙(1996). 여성심리학. 서울: 박영사.
- 홍경자·박영숙·김정은·김혜원(1998).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의 횡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8, 233-243.
- Brooks-Gunn, J., & Ruble, D. (1980). The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 *Psychosomatic Medicine*, 42, 503-512.
- Clarke, A., & Ruble, D. (1978). Young adolescent's beliefs considering menstruation. *Child Development*, 49, 231-234.
- Fradkin, B., & Firestone, P. (1986). Premenstrual tension, expectancy and mother-child relation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9, 245-249.
- Motiff, T., Caspi, A., Belsky, J., & Silva, P. (1992). Childhood experience and the onset of menarche: A test of a sociological model. *Child Development*, 63, 47-58.
- Northrup, C. (1998). *Women's bodies, Women's wisdom*. New York: Bantam Books.
- Rodin, J. (1976). Menstruation, reattribution and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345-353.
- Stoltzman, S. (1986). Menstrual attitudes, beliefs, and symptom experiences of adolescent females, their peers, and their moth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7, 97-114.
- Woods, N. (1985). Relationship of socialization and stress to perimenstrual symptoms, disability, and menstrual attitudes. *Nursing Research*, 34, 145-149.
- Woods, N., Dery, G., & Most, A. (1982). Recollections of menarche, current menstrual attitudes, and perimenstrual symptoms. *Psychosomatic Medicine*, 44, 285-293.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Dong-Ouk Yang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develop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which is adequate to assessing the attitudes of women who live in the gender equality oriented modern society and to check any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according to the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There were 933 female participants who have passed at least 2 years after menarche but less than 32 year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more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the less negative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but there found no relations between the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and "symbol of femininity", one factor of the scal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gender equality society as well as life-span development.